

일본, 민·관 공원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 시도

http://www.mlit.go.jp/report/press/toshi10_hh_000303.html

http://www.mlit.go.jp/report/press/toshi10_hh_000310.htm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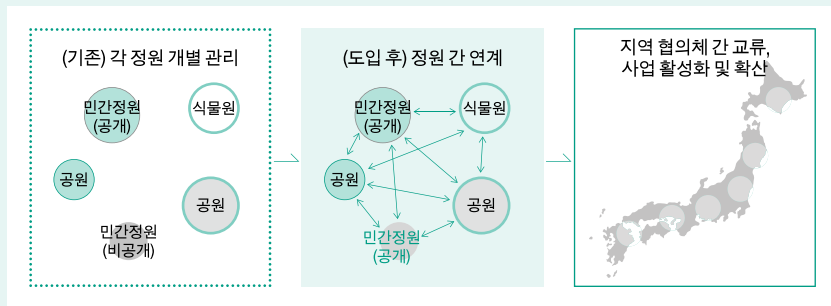
일본 정부가 지역 내 민간 정원과 공원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‘정원 간 교류협력 촉진계획 등록제도(정원관광 등록제도)*’를 도입한다고 밝혔다.

일본 국토교통성은 “일본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정원이 있고, 지금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. 그러나 민간 정원과 공원·식물원 등의 연계된 관리와 활동은 제한적”이라면서 “민·관의 공원이 지역 고유의 테마로 연결될 때 새로운 교류와 매력적인 관광 체험을 창출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였다.

등록을 원하는 지역은 ‘정원 간 교류협력 촉진계획(정원관광계획)’을 수립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. 촉진계획은 계획의 명칭, 계획의 테마 및 비전, 계획을 구성하는 정원·공원 등 실시 사업 및 협의회의 구성원과 사업실시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.

국토교통성은 지역의 촉진계획이 ▲지역의 풍토와 역사를 반영한 테마를 반영하였는지 ▲각 정원·공원의 테마와 일치하는지 ▲각 정원·공원 등이 공개되어 관리자가 명확한지 ▲실시하는 사업이 테마에 맞는 계획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▲정원 관리 및 자치단체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.

지난 4월 정원관광 등록제도 도입 이후 촉진계획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5월 홋카이도의 다이세쓰(大雪)~도카쓰(十勝) 지역, 요코하마시와 시오즈카현 등 6개 지역의 계획을 최종 선정하였다.



정원관광 등록제도의 개념

자료: 국토교통省(2019), “가든투리즘/등록制度を創設”, 4월 11일자 보도자료.



정원관광 등록마크

자료: 국토교통省(2019), “ここから始まるガーデンツーリズム”, 5월 28일 보도자료.

* 정식 명칭의 원문은 ‘庭園間交流連携促進計画登録制度’ 또는 ‘ガーデンツーリズム登録制度’